

# 地上神仙-人間改造의 研究

楊 茂 木 \*

## 目 次

I. 서 論	IV. 지상신선-
II. 인간관의 이해	인간개조의 실현
III. 신선사상의 의의	V. 결 論

## I. 서 論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두 번째 목적인 지상신선(地上神仙) 실현-인간개조(人間改造)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진리를 밝혀 알고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실현하는 지상신선과 인간개조는 현실의 인간이 진리 탐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종교적 사상이다. 지상신선이란 현실의 인간으로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를 깨우치고 실천하는 가운데 점차 신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 전개되어 오랜 기간 도전과 탐구의 대상이 되었는데, 본질적으로 운명적 한계를 타고난 인간이 그러한 한계를 초월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절실한 소망을 담고 있다. 유한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생노병사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태어나 늙고 죽음에 이르는 숙명을 타고났지만 이를 벗어나 젊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불로장생의 소망을 누구나 갖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도

---

\* 대전대학교 교수, 통일대학원 원장, 정치학 박사

가를 비롯한 선인들의 숭한 연구와 수련이 있어왔는데, 이러한 탐구의 결과 신선사상이 형성되었다. 신선은 현실 생활인 속세를 떠나서 선계(仙界)에 살며 젊음을 유지하며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존재를 말한다.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을 하고자 하는 신선사상은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화신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신선사상을 포함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윤리성을 갖게 한다. 지상신선이란 전통적인 신선사상과 함께 도덕적으로 최고의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전통적인 신선사상이 불로불사의 능력을 얻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산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을 필수적인 수행으로 삼고 신선이 살기에 적당한 명산(名山)을 찾는데 주력했던 데 반해 지상신선은 현실에서도 인간은 수도를 하여 고도의 인격을 함양하고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종교적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상신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개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사회는 유사 이래 많은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인간사회는 대립과 경쟁으로 전쟁이 빈발하였고,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여 왔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여 시기와 질투, 각종 범죄 등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인간을 개조하여야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역사적으로 꿈꾸어 온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지상신선이 되고자 하는 인간개조는 본 논총 지난 호에서 다룬 대순진리회의 첫 번째 목적인 정신개벽-무자기와 관련이 많다. 정신개벽을 위한 무자기(無自欺)가 실현되지 않으면 지상신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상신선이 될 수 있는 인간개조는 첫 번째 목적인 무자기를 통한 정신개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상신선이 될 수 있는 인간개조가 이루어져야 대순진리회의 궁극적 목적인 지상천국실현-세계개벽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지상신선 실현-인간개조는 인간의 변화를

가정한다. 현실의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 지상신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간 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보아 왔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간관에 따라서 인간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에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상신선과 인간개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상신선은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에서 종교적으로 제시한 인간상으로 인간의 개조가 필요하다.

## II. 인간관의 이해

인간관(人間觀)이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인간관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론과 주장으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인간에 관한 연구와 인간관이 다양한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존재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인간을 연구하는 목적이 각기 다른 데에 원인이 있다.<sup>1)</sup>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교적 고정된 생활형태를 갖고 일정한 존재형식을 갖고 있다. 다른 동물들은 출생 후 인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정상적인 육체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성장기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매우 길며,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는 오랜 교육기간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적 존재이다.

이러한 완성의 단계를 밟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과도 관련이 있다. 인간이 원래 악한 본성을 타고 난다면 악한 본성이 순화되고 정화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 난다면 범죄자가 양산되고 각종 사회악이 들끓는 것은 잘못된

1) 김춘태·이대회, 인간과 윤리(서울: 형설출판사, 1977), p. 20.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혹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 상태의 인간이 사회적 관습과 환경, 그리고 자신의 생활태도에 의해서 선한 사람도 되고 악한 사람도 된다는 학설도 있다. 그래서 인간관에 대한 연구는 종교적인 관점이나 학문적인 관점, 혹은 연구자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양의 인간관과 동양의 인간관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해 한마디로 결론지어 말한다는 것은 어렵다. 생래적으로 미완성인 인간은 어떤 정해진 법칙이나 실체에 의해 미래가 결정되기 보다 자신의 의지와 환경에 대한 적응, 그리고 교육적 노력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형성되어 간다. 그러므로 인간을 한 마디로 결론지어 정형화시키지 말아야겠으며 인간이 미완성의 상태로 태어나 점차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나 이상을 향하여 정진하는 자세를 더욱 중요시 여겨야겠다.

한편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과 의식적 노력에 의해 달려 있다. 인간은 자신을 형성하는 데에 책임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형성해 가야만 하므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설정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이 되어 가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의식에 의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자기 이해는 자신의 인격형성과 삶의 태도를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연구는 역사적으로 여러 학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이론을 제시하게 되고,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과 판단에 따라 인간에 관한 이론이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인간 연구는 철학, 신학, 과학 등에서 연구하여 왔는데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대에서 인간 연구는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각 학문의 인간 연구 결과는 더욱 다양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 인간 연구와 인간관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진 나머지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

다.

그리하여 인간연구와 연구관은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논문은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므로,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 연구와 인간관도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주장하고 전개되어 왔다. 인간의 철학적 연구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고 각각의 주장과 이론도 방대하다. 여기서는 주요한 철학적 인간 연구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2)</sup>

## 1. 이성적 인간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중심으로 인간관을 주장하였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뛰어난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만의 고유한 이성(理性)에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성은 영혼의 최고 부분으로서, 이성의 가치는 자율성(自律性)과 자족성(自足性)이라 하였다. 이성은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다는 이원론,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이성이 지배한다는 주장, 이성을 통한 본성적 욕망의 극복 등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인간관은 서양철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하는 윤리적 주체이고 문화 창조자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Sokrates)는 특수한 사물들이나 행위들은 관찰할 수는 있어도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며, 반면에 보편적인 것은 정의는 내릴 수는 있어도 감각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도덕적 인식을 얻는 수단으로서 감각을 경시하고 이성을 중시하였다.<sup>3)</sup> 플라톤(Platon)은 소크라테스의 인간 개념을 전승하여,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를 영혼의 무덤으로, 악마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본래적

2) 같은 책, pp. 22~54.

3) S. P. Lampreche, *Our Philosophical Traditions*(1955): 김태길·윤명노·최명관 옮김, 서양철학사(서울: 을유문화사, 1966), p. 55.

인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바로 영혼이며, 피안의 고향에서부터 영혼 안에 이성적인 것이 미리 자리를 잡고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플라톤과는 달리 영혼을 육체의 원현(圓現, entelechia)으로 보고, 인간을 “문명의 동물”,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동물”, “정치적 동물” 등으로 규정하여 생물학적 특징에 주목하여,<sup>4)</sup>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체가 없는 영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즉 영혼의 최고 부분은 이성(nous)이며, 이 이성이 밖으로부터 인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칸트(Immanuel Kant)는 세계에 대한 인식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능력을 세 가지, 감성(感性)·오성(悟性) 및 이성(理性)으로 분류하고, 인식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 이성을 꼽고 있다. 오성은 적극적이어서 무지의 어두움을 없애고, 판단력은 오히려 소극적이어서 대상을 나타내는 데에서 생긴 오류를 예방하고, 이성(理性)은 오류의 원천인 선입견(die vorurteile)을 막아서 원리의 보편성에 의하여 오성을 안전케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리스인들은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본원적으로 우주적 이성도 주장하였다. 이른바 ‘세계이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늘의 별들도 이성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았다. 인간의 이성도 우주적 이성(宇宙性)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도 이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성의 자율성과 자족성의 존중 사상은 바로 서양문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서양의 사회제도나 윤리에 두루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양의 예술 및 사상이 모두 이러한 이성적 인간관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으며, 그리스도교 사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sup>5)</sup>

## 2. 신학적 인간관

중세철학에서도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중세의 철학자와 신

4) Aristoteles, *Politica*, 1252b.: *Ethica Eudemia*, 1226b 22: *Politica*, 1448 b8.

5) 楊茂木,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174~177.

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통한 이성이 신앙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이 신앙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고대 그리이스 철학자들이 주장한 이성의 자율적 주체성은 경시되고, 신의 계시를 받드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어떤 공통된 신앙집단을 이루면서 때로는 현세의 길복(吉福)을 바라기도 하고, 인간의 내세를 믿으면서 신앙집단으로서의 동류의식(consciousness of kind)을 갖고 자신들과 같은 신앙집단인 인간만을 인간으로 보려는 신앙적 인간관을 갖고 있었다. 즉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면서도 창조자의 피조물로 파악하고 있다. 신학적(神學的) 인간관은 “신이 인간을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했다”는 가정하에, 고대 철학의 인간관을 통합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인간관은 (1)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다(神中心主義), (2)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人間尊重), (3)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다(原罪說) (4) 인간의 본향은 피안에 있다(來世主義)는 명제를 갖고 있다.

신중심주의(神中心主義)는 인간은 신이 창조한 존재로서 신을 인간의 이상상(理想像)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보다도 신을 절대시하고,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신의 계시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존중은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지만 신의 은총에 의해 지상의 주체로 보고 있다.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죄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다.

내세주의(來世主義)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사후(死後)에 더 순수하고 완전하다고 믿는 것이다. 인간은 사후에 최고의 자아를 완성할 수 있으므로, 현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동경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세관은 현 세계의 삶의 의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계의 삶을 내세의 모습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 3. 근세 철학의 인간관

근세 철학에서는 고대 그리이스철학과 같이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로 보고 있다. 인간은 자율적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자연을 극복하고 지

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이스에서는 인성은 영혼의 최고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데카르트(Decartes)는 영혼과 이성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이 바로 이성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근세 합리주의의 시조가 되었다.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인식은 칸트(Kant)와 헤겔(Hegel)에 이르는 독일 관념론 철학에서도 확고하였다. 헤겔은 이성의 변증법을 통해서 인간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 나아가 절대자인 신까지도 파악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성적 인간학과 이성적 형이상학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절대적 이성론은 낭만주의자들에 비판을 받았다. 인간의 인식 기능에는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낭만주의자들은 이성과 감정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감성이 이성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이들은 이성적 생각과 판단보다 감정이나 정열에 의한 생각과 판단이 더 풍부하고 깊은 삶을 인간에게 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쇼펜하우워(Schopenhauer)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고 의지(will)이라 한다. 그는 인간의 본질은 의지이며, 이성은 인간 의지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의지는 근원적인 삶의 힘으로서 그 자체로는 맹목적일 수 있으므로 이성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다. 니이체(Nietzsche)도 인간의 본질은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의 삶을 높은 힘과 높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중대한 과제인데, 이성은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의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니이체는 인간의 이성적 인식은 삶을 풍부하게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지식은 삶을 마비시킬 수 있으므로 이성적 인간관을 부정한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을 높은 힘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라 한다.

마르크스(Marx)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주장하여, 헤겔이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는 가정을 부인한다. 이성의 변증법적 발전에 따라서 현실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증법적 발전에 따라서 이성이 규정된다고 한다. 그는 넓은 의미의 이성이라 할 수 있는 의식의 산물인 종교, 예술, 철학, 정치는 하부구조인 경제적 생산관계에 의존해서 변화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 민족이나 한 사회의 경제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인 계급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 한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지만,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은 계급적 본능이나 소유의 지, 또는 삶의 의지라 한다. 인간은 노동과 사회질서의 혁명을 통해서 본래적인 자기 자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성적 인간관은 프로이드(Freud)의 심리학에 의해서도 새롭게 비판받는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 원동력은 성적 본능(性的 本能 · libido)이라 한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리비도의 한 부분이라 한다. 리비도는 인간에게 항상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문화가 인간의 본능을 제한하는 경우 억제된 본능은 무의식 속에 남게 된다고 한다.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리비도가 다르게 승화된 표현이 예술이며 종교이며 철학이기 때문에 리비도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이라 한다. 이성을 포함하여 인간의 의식은 보다 근본적인 힘을 가진 무의식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의식세계는 비본래적인 가식의 세계이고, 무의식의 세계가 본래적인 질서의 세계라 주장하여 이성적 인간관은 붕괴되었다. 무의식이 의식보다 인간 행동에 더 근원적이며 더 강한 작용을 한다는 주장은 이성적 인간관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이기 때문이다.

#### 4. 현대 철학의 인간관

19세기에 이성적 인간관이 도전을 받으면서 현대까지 인간의 이성 보다는 비이성적 측면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다. 현대의 인간관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본질이 이성이 아니라 육체적, 감각적인 감성이라는 감성적 인간관과, 다른 하나는 인간의 비합리적 요소를 중시하는 실존적 인간관이다.

감성적 인간관은 인간은 육체와 감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육체를 떠난 사유와 행동이란 불가능하므로 육체가 인간의 본질이며, 이성적 인간관이 주장하는 인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상상하는 추상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감성적 인간관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의식활동에 불과하며, 인간은 감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한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인간의 육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자유 의지에 의해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성적 인간관에서는 이성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보지만, 감성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이성 능력도 감성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 한다. 이성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동물들도 감각적 인식 능력을 갖고 외적 자극에 반응하는데, 다만 인간은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고도로 발달한 동물의 하나라는 것이다.

실존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합리주의에 있다고 한다. 의지와 감성 등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은 비합리적이라 한다.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비합리주의적 인간관이 실존적 인간관이다. 실존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실존으로 파악한다. 실존(existence)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실존은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존주의에서는 사물도 하나의 실존으로 인정하는데, 현실존재로서 사물은 인간과는 다르다고 한다. 사물들은 본질이라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본질보다 실존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물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대체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다른 인간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인간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각기 다른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실존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공통적인 본질로 인간을 이해해서는 아니 되고, 한 개인의 실존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의 실존이 중요한 것은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는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다.

## 5. 철학적 인간학

실존적 인간관이 인간을 실존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상적이다. 인간의 실존성을 통찰하고 있지만 실존적 존재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 전개가 부족하여 비판을 받으면서 실존철학의 극복이 과제가 되었다. 특히 셸러(Max Scheler)는 “철학의 모든 중심 문제들은 바로 이해하면 언제나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본질과 본질 형성을 다루는 기본학으로 철학적 인간학을 주장하였다. 철학적 인간학에서는 인간 존재의 총체 현상의 철학적·현상학적 분석이 문제가 되며, 인간 현 존재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의 전개가 과제가 되었다. 철학적 인간학은 (1) 개별과학이 탐구한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철학적 인간관의 종합을 시도하는 입장과, (2) 현상학적으로 인간의 자기 경험을 분석하여 인간의 본질을 정초(?)시키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험과학과는 독립해서 근원적인 철학적 과제를 탐구하려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 Ⅲ. 신선사상의 의의

신선사상(神仙思想)은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 형성되었다. 신선사상의 원류에 대해서는 고조선시대에 성립되어 중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견해와, 중국에서 형성되어 우리 나라에 전래되었다는 견해가 있다.<sup>6)</sup> 한국의 원시종교는 신도(神道)와 선교(仙敎)가 있었으며, 유교와 불교가 전래되었어도, 신도와 선교의 습성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한다.<sup>7)</sup> 우리 나라의 신선사상은 한민족의 고유사상에서 추출되어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도교와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고도 한다.<sup>8)</sup> 우리 나라의 신선가의 전승

6) 김낙필, “韓國道敎와 神仙思想”, 韓國道敎文化學會編, 道敎文化研究 第14輯: 韓國의 神仙思想(서울: 도서출판 동과서, 2000), pp. 22~29.

7) 李能和, 朝鮮道敎史(서울: 普成文化社, 1977), p. 53.

8) 車柱環, “韓國道敎의 共同體觀”, 韓國道敎文化學會編, 道敎文化研究 第11輯: 韓國의 神仙思想(서울: 도서출판 동과서, 1997), p. 5.

에 따르면, 신선도나 신선술은 본래 한민족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중국에 전파되어 본래 정신과는 달리 미신과 잡술에 가까운 형태로 전락해 버렸다고 한다. “삼신산인 한밭산에는 신선들과 신선유서들이 많았으므로 신선도교(神敎, 仙敎, 道敎)는 한밭산에서 발생하고 발전해서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다.”<sup>9)</sup>

이인노(李仁老)는 『파한집』(破閑集)에서 우리 나라를 신선의 나라(神仙之國)라 하고,<sup>10)</sup> 신도, 신교, 선교, 신선도, 신선교라는 종교가 있었다<sup>11)</sup>고 한다. 『동문선』(東文選)에는 신도로서 종교를 창설하여 태평(太平)이 가득했었다 하고,<sup>12)</sup> 중국의 진시황이나 한무제(漢武帝)가 불로초를 구하고, 신선술(神仙術)을 배우기 위하여 방사(方士)들을 우리 나라의 삼신산(三神山)에 보냈다는 고사(故事)가 있는가 하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을 선인(仙人)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sup>13)</sup> 이러한 기사(記事)들은 하나같이 상고대부터 우리 민족사회에 신선사상이 대행(大行)하였고, 신도 또는 신선도가 단군왕검 또는 그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추정케 한다.<sup>14)</sup>

반면에 신선사상이 한국에서 형성되어 중국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은 한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뚜렷한 증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논리 비약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sup>15)</sup>

한편 신선사상은 한국적인 것도 있고 중국적인 것도 있다. 우리 나라의 신선사상은 한국 고유의 선맥(仙脈)과 중국에서 전래되어 온 선맥(仙脈)도 있다.<sup>16)</sup> 우리 나라에 중국의 도교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선가로는 단군 신화를 비롯한 부족국가들의 시조신화들의 주인공은 선인

9) 都班淳 編, 神仙思想和 道敎(서울: 범우사, 1994), p. 41.

10) 李仁老, 「破閑集」, (跋) 柳在永譯註(서울: 일지사, 1978), p. 264.

11) 金得梲, 韓國宗教史(서울: 백암사, 1978), p. 40.

12) 「東文選」 卷之三十一, 教坊賀八關表: 神道設敎 大平持盈.

13) 「三國史記」, 卷第十七, 高句麗本紀, 第五, 十一, 東川王 二十一年條에 “平壤者本 仙人 王儉之宅也”라 하였다.

14) 安和範, 民族思想의 源流-神仙道의 根源的 糾明-(서울: 교문사, 1995), p. 32.

15) 최준식, “李能和의 朝鮮道敎史”, 韓國道敎思想研究會編, 韓國道敎文化의 位相(서울: 1993), pp. 293.

16) 최삼룡, “선인설화로 본 한국 고유의 선가에 관한 연구” 韓國道敎思想研究會編, 道敎와 韓國思想(서울: 범양사, 1987), p. 373.

이며,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선인들의 계보가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 당(唐)의 선류(仙類)가 신라인들에 의해 신라에 전래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형성된 신선사상이나 중국에서 전래된 신선사상은 모두 인간의 절실한 소망을 담고 있다. 신선이란 늙지 않고 오래 살며 마음대로 변화를 일으키는神通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한다. 신선사상은 인간은 태어나 늙고 죽음에 이르는 숙명을 벗어나 젊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불로장생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에서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신선사상은 속세를 떠나서 선계에 살며 젊음을 유지하며 장생불사(長生不死)한다는 신선의 존재를 믿고, 신선에 이르기를 바라며 추구하는 사상이다.<sup>17)</sup> 또는 신선사상은 실제적·육체적으로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의식형태 및 그 달성에 수반되는 다양한 방법적 기술적 체계를 총칭하는 것이라 정의하기도 한다.<sup>18)</sup>

신선사상은 산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자(莊子)의 재유편(在宥篇)에 황제(黃帝)가 광성자(廣成子)를 찾아가 장생의 도리를 배우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이 공동산이라는 산악이다. 산악은 하늘에 가까운 성스러운 장소로 숭배하였으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역(靈域)으로 보았다.<sup>19)</sup> 그리고 선(仙)이란 자의(字意)가 ‘산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선은 산에 사는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선사상은 지역, 인종, 시대 등에 따라 그 개념이나 내용이 다르다. 중국의 신선사상은 겸선천하(兼善天下)의 유가사상과, 독선기신(獨善其身)의 도가사상의 두 계통이 있다. 그러나 신선사상은 도가사상의 장생불사에만 중점을 두어 민간에서 전승되었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한말(漢末)에 여러 가지 의식을 갖추어 道敎로 발전하였다.<sup>20)</sup> 중국의 신선사상은 전국시대 말기에 형성되었는데, 고대 제(齊)나라의 북동 해안에는 명산을 대상으로 팔신(八神)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권(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 839.

18) 鄭在書, 不死의 神話와 思想(서울: 민음사, 1994.), p. 34.

19) 金錫夏,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대인의 異鄉仙界 意識”, 한문학론집, 제2권 (1968), pp. 6~8.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p. 842.

의 제사가 있었는데, 이 해안의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무당들은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루(영루)라고 하는 삼신산(三神山)의 존재를 믿었다. 삼신산에는 선인(仙人)이 살고 있으며 불사약이 있다고 믿었으며, 신산(神山)의 모양은 구름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금시 나무 밑에 있고 더욱 가까이 가면 바람이 불고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해안에 나타나는 신기루를 보고 난 뒤의 상상의 세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주로 제왕이나 제후 등 현세적인 권력과 쾌락의 영속을 바라는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신선을 갈구하여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사상이 전개되었다. 조식(調息), 복이(服餌) 도인(導引) 방중(房中) 등의 신체 단련이나 생리조절 방법을 개발하였고, 불사약을 구하거나 금단(金丹)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상고의 민족 형성과 건국에서부터 신선사상이 형성되었으나, 중국과는 달리 천계(天界)와 관련을 지었고, 민족발전과 개인생활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신선사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sup>21)</sup>

## 1. 단군신화와 환인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제왕운기’(帝王韻紀) 등에 나오는 단군신화는 산악신앙과 신선사상과 관련이 있다. 환인(桓因)은 제석(帝釋), 또는 상제(上帝)로 해석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석제환인(釋帝桓因)이라고도 하며, 천주(天主)라 하여 천상계의 통치자로 보아 왔다. 환인(桓因)은 천상계의 통치자로서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바와 같이 모든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선가(仙家)에서는 환(桓)은 광명으로, 인(因)은 본원으로 인식하여 환인을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적 존재로 보았다. 규원사화(揆園史話)의 조판기(肇判記)에 따르면 사람은 불멸하는 영명한 영혼이 있어서 선을 도와주고 악을 멀하여 본성에 통달하여 공업(功業)을 완성하면, 하늘에 올라가 환인(桓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21) 앞의 책, pp. 840~842.

환인의 서자인 환웅(桓雄)은 천하를 다스릴 뜻을 가지고 3,000 도중을 거느리고 천상에서 태백산 정상에 강림하였다. 환웅은 신웅(神雄)이라고도 하고, 강림하여 건설한 지역을 신시(神市)라 하고, 그 곳 나무를 신단수(神檀樹)라 하는 등 신(神)자를 붙인 것은 신성시하는 의미와 지상의 일반인들과는 다른 선인(仙人)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신화에는 환웅의 강림과 신시를 건설하고, 단군을 탄생시킨 일화만 기록되어 있는데, 후세의 선가들은 환웅이 궐천세(闕千歲)로 표현되는 장구한 세월 동안 무위자연의 법도에 따라 다스리고, 만대의 기틀을 잡아 놓고 신선이 되어 천상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웅은 환인의 명을 받들어 하늘과 땅을 갈라놓고 신시를 건설하여 설교치세(說教治世)하다가 단군에게 계승시키기까지 수십만 년이 걸린 것으로 되어 있다. 단군은 중국의 요(堯) 임금과 동시대로 본다면, 그 이전의 궐천세는 중국 전설상의 시대보다 오히려 오래 전이다. 이러한 설화는 우리 민족이 중국 한족(漢族)이나 다른 민족과 독립된 민족으로 장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군 왕검은 태백산정의 신사에서 내려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왕검은 현실에 맞추어 아사달(阿斯達)로 천도하고, 1,500년 뒤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천도한 뒤에 또다시 아사달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단군은 산신이 되었고 1,908세까지 수명을 누린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신선이 되어 죽지 않았다고도 한다.

청학집(靑鶴輯)에 따르면 단군이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 뒤에 문박씨(文朴氏)라는 사람이 아사달에 살면서 단군의 도를 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백악총설(白岳叢說)에 보면 문박씨는 환인의 도의 원류를 터득하고 절청지학(潔淸之學: 깨끗하고 맑게 사는 가르침)을 전하였고, 환인은 대왕씨(大往氏)를 시켜서 시서(始書)를 짓게 하고 본인은 종서(終書)를 지었다고 한다. 시서(始書)에서는 풍우(風雨), 오곡(五穀), 음식 및 연양(練養)의 도를 주관하고 성신(誠信)과 불투불음(不偷不淫)을 인간의 선한 일로 규정하였고, 종서에서는 일월, 성신(星辰), 천지, 산천의 이치, 성명(性命)의 본원 및 신도(神道)와 묘덕(妙德)의 교훈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대왕씨(大往氏)를 시켜서 선관(仙官)들에게 종서(從書)를 반포하게 하였고, 대왕씨는 도중들과 함께 환인을

문조씨(文祖氏)로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환인의 도는 책들과 함께 문박씨에 전해지고, 다시 을밀(乙密), 영랑(永郎), 안류(晏留), 보덕(普德), 성여(聖女) 등으로 전승되었다고 한다.<sup>22)</sup> 환인과 환응을 계승한 단군은 신선이 되었으며, 결정지학 등의 가르침이 이어졌다고 한다.

## 2. 삼국시대의 신선사상

삼국시대의 건국신화를 보면 신기한 사적(史蹟)이 많다. 고구려는 동맹(東盟)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늘을 경외하고 신을 숭상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東明)과 주몽(朱蒙)은 천제(天帝)의 손자이고,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解慕漱)는 천제의 태자로 기원전 59년에 천제에 의해 부여왕의 고도로 파견되었다. 해모수가 천상에서 강림할 때에 오룡(五龍)의 수레를 타고 흰 따오기를 탄 수행원이 100여인이거나 되었다 한다. 하늘에는 채색구름이 떠 있고, 구름 속에서 음악이 울려났다고 한다. 해모수가 강림한 곳은 웅심산(熊心山)으로 10여일이 지나서야 지상에 내려와 아침에는 정사를 보고 저녁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해모수는 유화(柳花)의 몸에 주몽을 잉태시키고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주몽은 천제의 손자로서 고구려를 창건하고 많은 이적(異蹟)을 행하였다. 주몽은 고구려를 18년간 통치하다가 40세에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태자인 유리(類利, 琉璃)는 주몽이 남기고 간 옥편(玉鞭)을 용산(龍山)에 묻어 장례를 지냈다.

신라의 건국신화도 신선적이다.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에 관한 설화에 신성한 존재로 보고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혁거세는 우리 나라 말로 불거내(弗去內)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리세(光明理世)의 뜻이라 한다.

22) 白岳叢說云…吾東則文朴得桓因之源 傳爲潔廳之學焉 又云 南石行曰 桓因真人 使大往氏術始書 自作終書一卷 始書者 主風雨五穀飲食鍊養之道 最以誠信 不鬪不淫 爲人間善事 終書者主日月星辰天地山川之理 性命之源 神道妙德之訓 使大往氏 頒告終書于中外 仙官丈往乃與其徒 稱桓因爲文祖氏 其書傳自文朴 乙密 永郎 晏留 普德 聖女之流焉; 李能和, 朝鮮道教史, 第2章 朝鮮檀君神話最近於道家說(影印本) (서울: 中大韓國學研究所, 1977), pp. 13~14.; 安昶範, 民族思想의 源流-神仙道의 根源的 糾明-(서울: 교문사, 1995), pp. 33~34.



높은 곳에 올라 남방을 보니, 양산이란 곳의 나정의 옆에서 이상한 기운이 영광(靈光)과 같이 땅에 드리워 있었다. 한 마리의 백말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는 듯하였으므로 가서 살펴보니 하나의 자색말이 있었다. 말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말을 자르고 한 동남(童男)을 얻었다. 모습이 단정하고 아름다웠으므로 일동이 놀랐다. 동천(東川)에 목욕시켰더니 몸으로부터 광채가 났으며 새와 짐승이 즐거이 춤추고, 천지가 진동하였으므로 일월이 청명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赫居世王이라 불렀다.<sup>23)</sup>

신라 시조인 혁거세는 광명의 신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의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계승하여 선풍(仙風)이 성행하였다. 단군이 문박씨를 통해 환인 이래의 도를 전승한 영랑(永郎)은 술랑(述郎), 남랑(南郎), 안상(安詳) 등과 함께 신라 사선으로 불린다. 결정지학의 고유 선풍을 계승한 영랑은 노우관(驚羽冠)을 쓰고 철죽장(鐵竹杖)을 짚고 다니는데 90세가 되어서도 신색이 어린아이 같고 행색이 기괴하였다고 한다. 사선들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들은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산수간을 호유하는 선인들로서 추종자가 3,000여인이나 되었다 한다. 사선을 추종한 도중들도 속세로부터 초탈하여 자유스럽게 생활하였다.

사선이 일으킨 선풍은 신라시대에 신선사상으로 발전한다. 신라의 신선사상은 풍류도(風流道), 혹은 풍월도(風月道)라고도 하는데, 이는 화랑도의 지도이념(기본사상)이 되었다.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書)’에 신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어 그것을 풍류라 하고 그 가르침을 마련한 근원은 선사(仙史)에 있다고 하였다. 풍류는 세속적인 일에서 초탈하여 고상하게 산다는 의미이며, 풍류도는 초월적인 삶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풍류도를 계승한 화랑도는 576년(진흥왕 37년)에 시작되었는데, 사선의 유풍을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유불도(儒佛道)의 덕목들을 보완하여 인재양성의 제도가 되었다. 화랑도는 “화랑은 신선의 무리”라고도 하고, 화랑의 사상적 배경은 선도(仙道)로서 신라의 토속신앙인 산악신앙, 산신숭배, 제천의식, 무속신앙의 전통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화랑은 많은 낭도를 거느리

23) 三國遺事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진수, “풍류도로서의 신선사상”, 韓國道教文化學會 編, 道教文化研究 第14輯. 韓國의 神仙思想(서울: 도서출판 동과서, 2000), p. 139에서 재인용.

24) 崔光植, 高대한국의 국가와 제사(서울: 한길사, 1994), pp. 278~279.

고 산수에서 도의를 연마하고 음악을 즐기는 등 사선의 행태를 따랐다.

화랑도의 신선사상은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제도가 되어 신체 단련, 무예 연마, 대의 각성, 관용과 희생을 키우려는 기개 함양 등 수련 방향이 제도화되었다.

### 3. 고려와 조선시대

화랑도의 선풍은 고려시대에도 이어졌다. 고려 예종은 1116년 5월 경진일에 내린 제서(制書)에서 신라 사선의 유적을 성지로 삼도록 하고, 국선의 일을 대관의 자손들이 행할 것을 명하였다. 의종도 1168년 3월 무자일에 신령(新令)을 반포하고 선풍을 숭상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의 선파(仙派)들은 유가 지식인들과는 전혀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신라가 당병(唐兵)을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것과, 한문화를 숭상하는 사대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조선시대 선파들은 대륙과 일본 등에 대해서 저항하고 민족자주를 주장하였으며, 관료사회의 공론적인 역할에 회의적이었다. 그 결과 새로운 구세이념(救世理念)을 선도(仙道)에서 찾으려 하였다. 이들은 “공허한 글에 빠져 쇠약하고 자기의 도는 버리고 송유(宋儒)의 여타(餘唾)를 씹으며 자기의 입금을 깎아 내려 외국의 신복(臣僕)에 견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조선 후기에 실학이 대두하여 성리학을 비판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을 주창한 것도 선파의 사고방식을 계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학자 이종휘(李種徽)는 수산집(修山集)에서 단군의 사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마니산 제천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고유문화를 강조하였으며, 고구려와 발해 등의 옛 영토회복의 의지가 없음과 사가들의 사대성을 개탄하였다. 유가의 공론성과 민족 주체성을 고양하려는 선파들의 사상은 한말의 사가들에게도 이어졌다.

## IV. 지상신선 - 인간개조의 실현

대순진리회에서 지상신선(地上神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없다. 대순진리회의 전경에는 신선, 선, 또는 지상신선에 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어떠한 존재라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지상신선의 의미는 자의(字意)와 전경의 내용을 유추하여 체계화하여야 한다.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지상신선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선은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 땅에도 내려와 인간과 교류할 수 있다고 한다.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 세월을 회과 자책하여 내 일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니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쾌하여 지더니 돌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 분을 만나니라. 그 신선이 네가 이제 늙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여러 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 사람만의 응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 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sup>25)</sup>라 하였다. 그리하여 신선이란 인간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여 인간과 교류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신선은 사람이 죽어서 화신하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전경에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sup>26)</sup> 한다. 여기서 인간은 사후에 영도 되고 선도 된다고 하는데, 선이란 바로 신선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죽으면 선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선은 신선으로 신과

25)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법: 3-16.”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250.

26) 같은 책, “교법: 1-50.”, p. 230.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상신선이란 인간이 생전에도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상이란 인간의 생존을 뜻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인간도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지상신선이란 기존의 신선사상과는 달리 종교적으로 함축하는 사상적 내용이 심오하다고 생각한다. 신선사상은 현실의 인간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자 하는 바람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상신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선사상과 대순사상의 지상신선은 개념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지상신선은 전통적인 신선사상과는 달리 인간이 고도의 인격 수양을 하고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야 가능하다는 종교의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다. 지상신선은 수도 생활을 철저히 하여야 만이 가능한 최고의 인간이다.

넷째, 지상신선은 인간이 수도를 하여 새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지상신선은 수도를 하여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완성된 최고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현실 세계의 인간은 육신의 한계와 한없는 욕구로 인하여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상신선은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지상신선이다. 신선이 되는 것은 영통(靈通)으로서 인간이 신명세계와도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본래 신선이란 인간이 초월적인 신통력(神通力)을 가지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인(神人)을 말한다.<sup>27)</sup> 지상신선은 인간이 신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새롭게 변신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기된 사상이다. 인간이 생존한 상태에서 참된 성품을 깨달아 허망한 일을 하지 않고, 지성을 다하면, 신과 같은 수준의 인격과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과 같아지니라.<sup>28)</sup> 하는데, 신과 같아진 상태가 지상신선이다.

다섯째, 신선이 사는 곳을 선경이라 한다. 대순진리회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27)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보문출판사, 1990), p. 146.

28) 대순지침, 앞의 책, p. 75.

로 삼고 있는 증산은 “나는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문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sup>29)</sup>라 하였으며,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sup>30)</sup> 하였다. 선경이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인간이 동경해 온 이상향(유토피아)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현실의 인간들이 신선이 되어서 사는 곳이 선경인데 이를 지상선경이라 하기도 한다. 지상선경은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다운 경지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sup>31)</sup>

여섯째, 지상신선은 도통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도통은 모든 도가 상통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도통은 대순사상의 도인 천도(天道), 지도(地道), 인도(人道)의 주체인 天地人이 막힘이 없이 통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신이 서로 통하여 화합을 이루면서, 각각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도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 아즉도(道卽我 我卽道)의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三界)를

2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권지. 1-11.”, p. 266.

30) 같은 책, “권지: 1-21.”, p. 271.

31) 같은 책, “예시: 81.”, pp. 336~337.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인 것이다”<sup>32)</sup> 라는 것이다.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를 통찰하고 깊이 깨닫기 위하여 성실하게 수도를 하여 道가 나 자신이며 내가 곧 도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正覺)한다. 도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것인데, 인간이 실행해야할 궁극적 가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도통에 이른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 도가 인간이라 한 것은 인간이 내재해 있는 본성을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도통을 하게 되면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 도통은 인간이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어떠한 것과도 통할 수 있으며, 인격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상신선은 유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른 것이며,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한 상태 이상을 말한다. 유가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의 이법(理法)과 합치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도가를 주창한 노자도 성인은 무위(無爲)를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최고의 인간을 말한다. 성인은 무위하여 실패하지 않으며 불욕(不欲)하여 귀한 재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은 나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밝게 살피며, 하지 않아도 이른다고 하여 신비스런 현통(玄通)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성인을 노자는 천지(天地)와 같이 구원(久遠)하고 진실하여 영원히 살며, 성인은 그 몸을 뒤로 하지만 오히려 몸이 앞서가고, 그 몸을 버려도 영원히 살아남게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인은 그 자아를 이루는 것이다<sup>33)</sup> 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상신선이란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성인 이상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조되어야 한다. 현실의 인간상태로는

32)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69), p. 9.

33) 노태준 譯解, 老子 道德經: 第7章(서울: 흥신문화사, 1998), pp. 44~47..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是以 聖人 後其身 而身先 外其身 而身存 非以其無私耶 故能成其私.

지상신선이 될 수 없으므로 개조되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개조는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여 완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는 것이다. 지상신선이 되고자 하는 인간 개조는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인도(人道)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지상신선은 진실무망(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한다. 중용(中庸)에서 성(誠)은 천도(天道)이고, 성(誠)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도(道)라 하였는데, 지상신선은 천도(天道)인 성(誠)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지상신선은 인격완성을 하여야 하는데,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가질 것을 강조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 나니라”,<sup>34)</sup> 하고,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 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 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意不誠)”<sup>35)</sup>하여 참된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참된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무자기(無自欺)라고도 한다. 무자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인간이 개조된다. 대순사상에서는 모든 죄악은 나 자신을 속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를 인간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인간개조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억울하게 하는 척을 짓지 않아야 한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sup>36)</sup> 하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원한을 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개조된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남에게 척을 짓지 않거나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기본적이고 소극적인 인도(人

34)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법: 1-21.”, 『진경』, p. 225.

35)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76.

36) 앞의 책, “교법: 2-44.”, p. 242.

道)라 한다면, 남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인도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척이나 원한을 짓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할 당연한 도리이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큰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실천윤리이다. 그리하여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sup>37)</sup> 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sup>38)</sup> 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원한을 갖고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반성하고 포용하라고 한다.

## V. 결 론

이상으로 대순진리회의 두 번째 목적인 지상신선 실현-인간개조를 고찰하였다. 지상신선이란 대순진리회에서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나누는데, 선천세계는 우주가 형성된 이래 개벽이 되기 전까지인 현세를 말한다. 후천세계는 개벽이 이루어져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변화된 시대를 말한다. 선천세계의 인간들은 재리를 탐하고 양심보다는 사심을 따르는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고 개인적 욕구대로 살고 있어서 원한이 쌓여 선천세계는 진멸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선천세계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후천세계로 전환하는 개벽을 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개조되어야 한다. 선천세계의 인간이 개조된 것이 지상신선이다. 지상신선은 선천세계의 인간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기도 하고, 후천세계의 인간상이기도 하다.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회의 첫 번째 목적인 정신개벽-무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의 인간들이 정신적 대 변화를 이루는 정신개벽을 통해서 무자기를 실행하여야 지상신선이 가능하다.

지상신선은 우리 나라와 중국에서 전개되어 온 신선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은 종교적으로 사상적 의의가 심오하다. 지상신선은 현실의 인간들이 신선과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인간상이다. 대순진리회의 말하는 신선은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

37) 같은 책, “교법: 1-56.”, p. 231.

38) 같은 책, “교법. 1-34.”, p. 227.



만 인간과 교류할 수 있다. 신선이란 인간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여 인간과 교류할 수 있다고 한다.

신선은 사람이 죽어서 화신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보기도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인간은 죽으면 영도 되고 선도 된다고 하는데, 선이 신선과 같은 의미이다. 인간은 사후에 초월적 존재인 신이 될 수 있는데, 지상신선은 생존한 상태에서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지상신선은 전통적인 신선사상과는 달리 인간이 고도의 인격 수양을 하고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야 가능하다는 종교의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다. 지상신선은 수도 생활을 철저히 하여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여야 가능한 최고의 인간상이다. 즉 지상신선은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완성된 최고의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지상신선은 영통(靈通)으로서 초월적인神通력(神通力)을 가지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인(神人)으로 신명세계와도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인간이 생존한 상태에서 참된 성품을 깨달아 허망한 일을 하지 않고, 지성을 다하면, 신과 같은 수준의 인격과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 이른 것이 지상신선이다.

그리고 지상신선은 도통을 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도통은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천도, 지도, 인도의 주체인 천지인(天地人)이 막힘이 없이 통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신이 서로 통하여 화합을 이루면서, 각각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도통에 이르려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를 통찰하고 깊이 깨닫기 위하여 성실하게 수도를 하여 道가 나 자신이며 내가 곧 도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正覺)한다. 도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본질을 깊이 깨닫고 천지인 삼계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신명세계와도 교류하여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상신선은 유가나 도가에서 최고의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성인의 경지와,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한 상태를 뜻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조되어야

한다. 생노병사에 시달리며 온갖 근심을 달고 사는 현실의 인간상태로는 지상신선이 될 수 없으므로 개조되어야 한다. 지상신선이 되는 인간 개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인 인도(人道)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도리를 다하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면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없고 생노병사를 넘어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 또 지상신선은 진실무망(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지상신선은 인간이 인도는 물론이고 천도(天道)까지도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이 가지고 참된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한다. 참된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무자기(無自欺)이다. 모든 죄악은 나 자신을 속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를 인간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실행하는 것이 인간개조이다. 그리고 인간개조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억울하게 하는 척을 짓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척이나 원한을 짓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개조된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실천윤리이다.

지상신선과 인간개조는 대순진리회의 교리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 사회의 각종 문제의 해결과 인격 수양에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와 재리만 탐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리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지 못하는 인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의 인간이 고도의 인격을 함양하고 모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를 제시하는 지상신선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규범이다. 인간이 생존시에도 신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최고의 인격을 수양할 수 있다는 지상신선은 대순진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인 동시에, 인류의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 【참고문헌】

### 1. 저 서

#### 가. 한 국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 김춘태·이대회, 인간과 윤리(서울: 형설출판사, 1997)  
金得槐, 韓國宗教史(서울: 백암사, 1978)  
金泰吉·尹明老·崔明官 옮김, 서양철학사(서울: 율유문화사, 1966)  
노태준 역해, 노자 도덕경(서울: 흥신문화사, 1998)  
都珖淳 編, 神仙思想和 道教(서울: 범우사, 1994).  
李能和, 朝鮮道教史(서울: 普成文化社, 1977)  
李仁老, 「破閑集」, (跋) 柳在永譯註(서울: 일지사, 1978)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보문출판사, 1990)  
鄭在書, 不死의 神話와 思想(서울: 민음사, 1994.)  
崔光植,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서울: 한길사, 1994).  
韓國道教文化學會 編, 韓國의 神仙思想(서울: 도서출판 동과서, 2000)  
韓國道教思想研究會 編, 韓國道教文化의 位相(서울: 범양사, 1993)  
韓國道教思想研究會 編, 道教와 韓國思想(서울: 범양사,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권(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  
구원, 1992)  
「東文選」 「三國史記」

#### 나. 서 양

Aristoteles, Politica

Erich Fromm, Man for Himself(New York: Holt, 1947)

Immanuel Kant,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herausgegeben von

Karl Vorlander, Leibzig, 1922. § 59. s. 150.

S. P. Lampreche, Our Philosophical Traditions(1955)

## 2. 논문

김낙필, “韓國道敎와 神仙思想”, 韓國道敎文化學會編, 道敎文化研究 第14輯: 韓國의 神仙思想(서울: 도서출판 동과서, 2000).

金錫夏,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대인의 異鄉仙界 意識”, 한문화론집, 제2권 (1968)

楊茂木,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이진수, “풍류도로서의 신선사상”, 韓國道敎文化學會 編, 道敎文化研究 第14輯: 韓國의 神仙思想(서울: 도서출판 동과서, 2000).

車柱環, “韓國道敎의 共同體觀”, 韓國道敎文化學會編, 道敎文化研究 第11輯: 韓國의 神仙思想(서울: 도서출판 동과서, 1997).

최삼룡, “선인설화로 본 한국 고유의 선가에 관한 연구” 韓國道敎思想研究會編, 道敎와 韓國思想(서울: 범양사, 1987).

崔준식, “李能和의 朝鮮道敎史”, 韓國道敎思想研究會編, 韓國道敎文化의 位相(서울: 범양사, 1993).